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인도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도의 경제 안보와 한-인도 경제협력 방안

장 재 복 (2023.5.17.)

I. 서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운 인도국민당(BJP)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4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지 9년이 되었다. 이후 인도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제3세계와 비동맹그룹을 대표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그늘에 있던 인도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IT,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매년 수백만 명의 정보통신 분야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 젊고 역동적인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인허가 왕국(License Raj)”이란 별명 아래 대규모 규제와 공공부문의 경직성으로 대표되었던 인도의 경제 체제가 이제는 영어, IT, 높은 시장성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IBM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모두 인도계인 점 또한 인도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도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극대화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로,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자 에너지, 자원, 농산물 등 국가 경제의 필수 전략 품목들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높은 시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반대로 전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전 국민의 70%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는 인구구조의 혜택이 최소한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의 GDP는 세계 5위, 1인당 GDP는 2,300 미불 수준인데,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중국과 비교하면 전 세계에서 인도보다 좋은 시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문에서는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각 중인 인도의 경제 현황과 SWOT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인도 진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등장한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적 측면에서의 인도를 분석하며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한-인도 관계 확대를 위한 5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인도 경제 현황 및 SWOT 분석

1. 인도 경제 현황

2022년 인도의 GDP 성장률은 6.8%로 글로벌 성장률(3.4%)의 2배, 미국(2.1%)의 3배, 중국(3.0%)의 2.4배를 상회하며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도 성장률 또한 6%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타 신흥국(3.9%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6.5%의 물가상승률과 10년 만기 국채수익율도 7.5%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 기준으로 인도 내 모든 산업 분야가 작게는 3%(광물), 많게는 20%(금융, 부동산, 전문서비스 분야) 성장하며 코로나 봉쇄로 중국의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표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예상	
지역	2022	2023	2024
세계	3.4	2.8	3.0
미국	2.1	1.6	1.1
EU	3.5	0.8	1.4
중국	3.0	5.2	4.5
인도	6.8	5.9	6.3
한국	2.6	1.5	2.4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IMF, UNCTAD)

인도의 매크로 지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India NSE)의 시가총액은 3.5조 달러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 홍콩(5.4조 달러)의 65% 수준까지 성장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축률(28.2%)과 투자 비율(31.2%)은 대인도 투자의 긍정적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대외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외환보유고도 2023년 기준 6,000억 달러,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도 19.2%로 예상되며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한 경제 체질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의 56%가 설비투자 증대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도 정부의 경제정책 드라이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표2) 인도 GDP 성장률 예측(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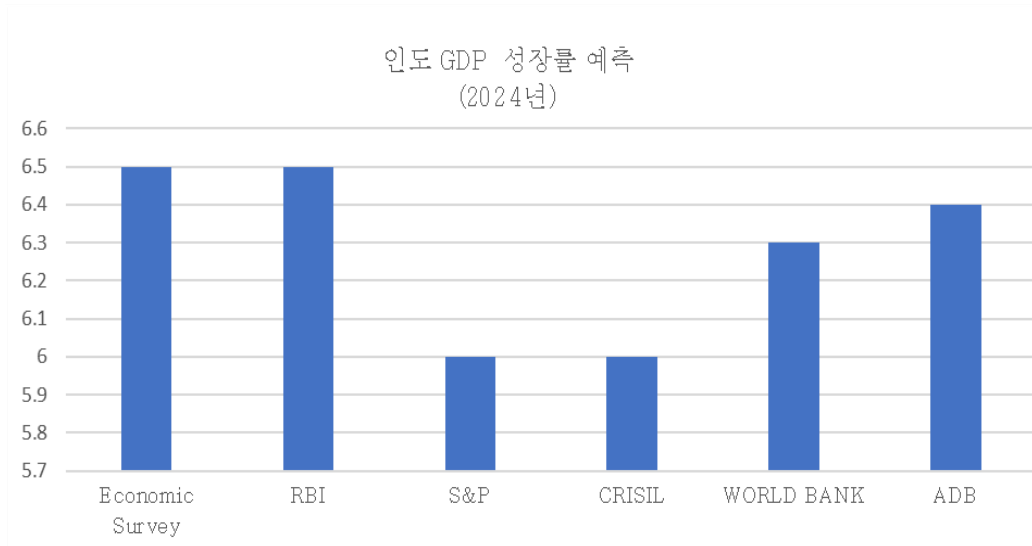


표3) 인도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CPI 물가(%)	6.2	6.4(2023년2월)
보유 외환(US\$, 10억)	577	600
재정적자(%)	6.7	6.4
대외부채(GDP대비 %)	21.2	19.2 (회계연도 2023년 2분기 기준)
정부부채(GDP대비 %)	89.6	86.5 (회계연도 2023년 예상 목표)
경상수지 적자(GDP대비 %)	1.2	3.3
PE&VC 투자(US\$, 10억)	83	53
FDI(US\$, 10억 달러)	85	62(9개월 기준)

(출처: IMF, MOSPI, World Bank)



PE(Private Equity)와 VC(Venture Capital) 투자는 2022년 대비 300억 달러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530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9개월 만에 620억 달러를 달성하며 지난해 기록한 850억 달러를 무난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장률 대비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인도의 에너지 공급망은 단기적인 인도 경제의 숨겨진 위험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자산매입축소를 통한 통화량 조정, 수출 증가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 중이다.

2. SWOT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은 GDP 성장률, 투자, 정부 정책 및 대외변수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다. 아래의 표는 인도 진출 시 강점/기회 요인과 약점/위협 요인을 도식화한 것으로 Macro Data를 넘어 인도 진출 전략을 보다 구체화했다.

표5) SWOT 분석

강점(Strengths)		기회(Opportunities)	
-경제규모 및 성장 -인구구조 -디지털화/IT서비스 -기업가정신 및 생태계	SWOT	제조업 기여도- 인프라 투자 활성화- 에너지 전환 정책-	
-기업환경(계약이행) -전기/에너지공급 부문 -교육/보건 공공투자 -R&D투자 부진		에너지 수급- 지정학 요인- 금융산업- 글로벌 공급망 이슈- 자원/기술 접근성-	
약점(Weaknesses)		위협(Thre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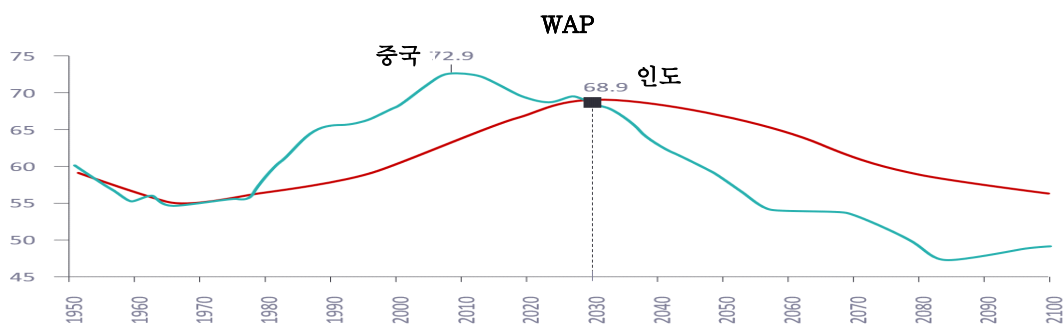


(1) 강점(Strengths) 및 기회(Opportunities) 요인

<인구구조>

인도의 최대 강점은 높은 생산가능인구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이다.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생산 가능 노동력의 24.3%가 인도로 예측되고 매년 214만 명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이수 노동력이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도 잠재적으로 600만 명의 인력풀이 구성되며, 2030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의 생산가능인구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표6) 생산가능인구 비교(중국 대 인도)



(출처: 유엔 인구 조사, 2022)

<디지털 및 IT>

IT산업은 인도의 핵심 분야로 IT/ITeS 부문은 연평균 14%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미래 성장성 또한 높은 분야로 미래 기회 요인이 큰 산업이다. 특히, 인도 정부가 전체 국민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 프로젝트는 향후, 핀테크, IT 보안, 빅데이터, AI 등 전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이슈 및 IT 보안 문제, 외주 중심의 인도 정보통신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IT 인력의 70%, 8.37억 명의 인터넷 구독자, 8.4만 개의 신생기업(Startups), 세계 3위의 유니콘(Unicorn) 기업 100개 이상 보유 등 인도의 IT는 잠



재 성장 가치와 현재 투자 가치가 모두 높은 최단의 미래가치 산업으로 평가된다. PE/VC 투자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계 3위 규모로 인도 금융시장 발전과 함께 투자 규모 또한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

현재, 인도는 크게 3가지 분야의 제조업 증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축적한 백신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조, 스마트폰 시장 1, 2위 업체인 삼성과 애플 공장 투자유치, 마지막으로 IT 하드웨어 부문이다. PLI(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 확대, 노동 개혁, 수입 관세 정상화 등 'Make in India'를 기치로 한 글로벌 제조업 허브 추진에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물류비 절감과 운송 효율성 확대를 위한 중앙 정부의 인프라 투자 비중도 매년 증가 중이다. 2018년 GDP 대비 1.6%였던 인프라 투자 지출이 2023년 3.3%로 약 2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2016년 인도 총 고속도로 건설 투자가 6,000km 규모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500km 고속도로망을 건설 중이다. 현재 물류비 비중이 GDP 대비 14~18% 수준으로 글로벌 벤치마크 수준인 8%에 아직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의 녹색에너지 전환 달성도 투자의 큰 기회 요인이다. 인도는 현재 글로벌 3위의 재생에너지 공급국가이다. 원전 확대와 22억 달러 규모의 15GW급 수소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가치사슬의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실화하면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어 에너지 산업 분야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2) 약점(Weaknesses)/위협(Threats)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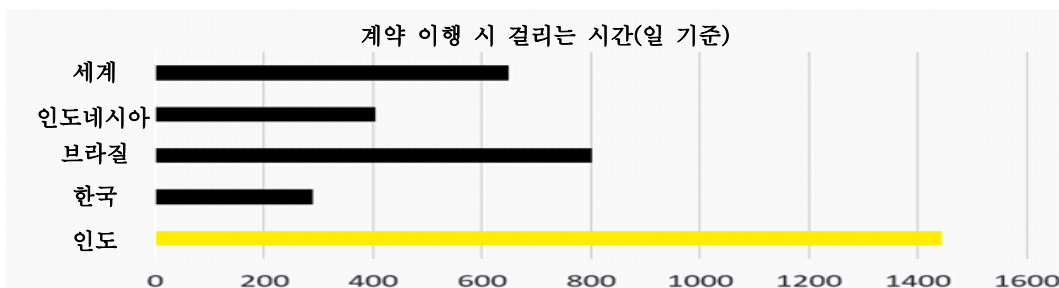
<기업환경 - 계약 이행 지연>

인도 정부가 제조업 및 비즈니스 친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 내 계약 이행 시 걸리는 기간은 전 세계에서 최장 수준이다. '인허가 왕국 License Raj'의 인도 비즈니스 환경이 말해주듯 인도 내



법인 설립부터 인가, 회계/세무 신고 및 기업활동에 따르는 시행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한국(250일)과 비교하면 인도는 약 5.5배가 넘는 1,4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계약 이행 시 걸리는 시간(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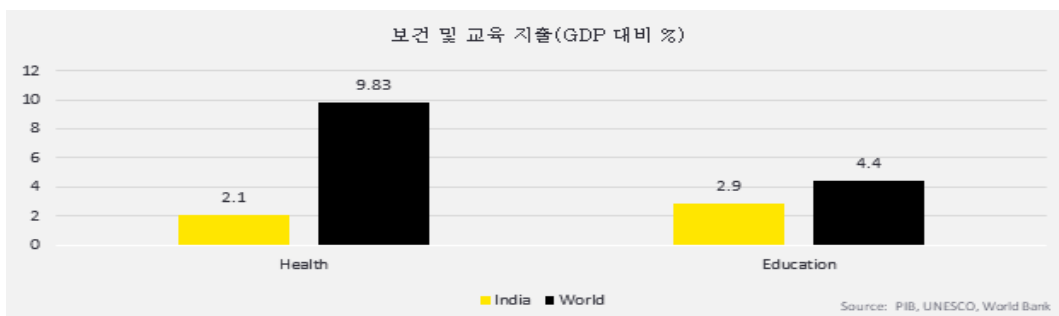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19)

<공공부문 투자(에너지/보건/교육/R&D)>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과는 모순적으로 인도의 높은 에너지 비용과 비효율, 대외 의존도(원유 85%, 천연가스 46%, 석탄 21%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은 인도 진출의 추가적인 약점 사항 중 하나다.

또한, GDP 대비 보건과 교육 분야 투자가 글로벌 평균(보건 9.83%, 교육 4.4%) 대비 보건의 경우 약 20% 수준, 교육의 경우 50% 정도로 경제 규모에 대비하여 매우 낮다. STEM 계열의 고숙련 노동인구와 비교해도 기초 단계의 보건과 교육투자가 부실한 점은 인도 진출의 약점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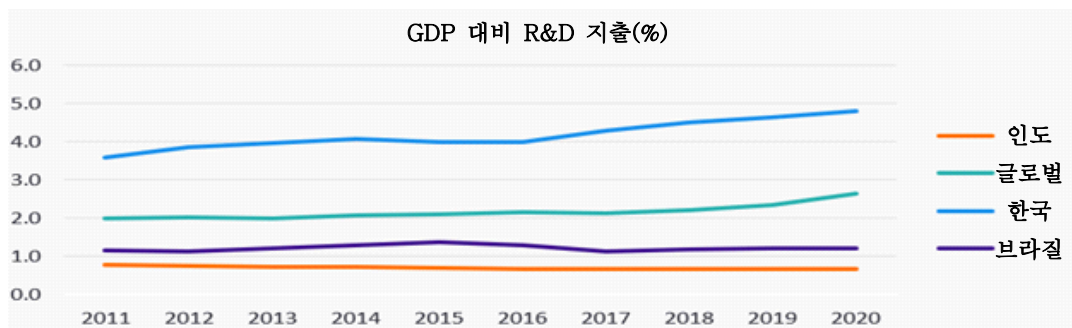
표8) 보건 및 교육 지출(GDP대비 %)





제조업 산업 육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도,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또한 같은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보다 낮고 글로벌 대비 50%, 한국의 20% 수준으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현재의 제조업 진흥정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9) GDP 대비 R&D 지출(%)



(출처: MOSPI, EY India)

III. 인도의 경제 안보 동향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 중이다.

인도는 ‘경제 안보’라는 총괄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기보다, 각 세부 이슈별로 주무 부처들이 유관 부처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 경제 분야에서 특정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해당 이슈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게 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총리실에서 직접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인도의 주요 경제 안보 분야인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공급망 관리, 핵심 광



물 안보, 사이버 안보 등에서 공급망 회복 탄력성 및 조기 경보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고위급/분야별 협의체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표10) 인도 경제 안보 분야 및 담당 부처

경제 안보 분야	담당 부처
에너지 안보	신재생 에너지부
식량 안보	소비식량 공공 배급부
공급망	상공부
반도체	전자정보기술부
5G및 통신기기	통신부
핵심광물	광산부
사이버	전자정보기술부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이슈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 안보이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안정적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 장기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믹스 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인구 14억, GDP 규모 5위의 경제 대국이며, 2021-22년 기준 세계 3대 전력 생산국(1561 TWh)이자 세계 3대 전력 소비국이다.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글로벌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4-25년 기준, 5조 달러의 GDP 달성을 목표함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표11) 인도 에너지 안보 현황 및 대응

현 황	대 응
전력 소비 (생산 3위, 소비 3위, 설비용량 5위)	수입량 감축 (원유 수입량 10%, 의존도 81%-67%)
자원 매장량 (원유 6.19억 톤, 천연가스 1.38조 m ³)	생산량 증대 (150~155메가톤, 탄화수소 광업권 인가정책, HELP 시행 중)
수입의존도 (원유 85.5%, 천연가스 46%)	수입선 다변화 (UAE, CEPA 체결, 호주 ECTA 체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50% 신재생 전환, 2030년 목표)



인도는 2015년 UNFCCC에 NDC(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로 2005년 대비 배출 강도를 33~35% 줄이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설비의 40%(누적)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전력 설비로 전환하는 한편, 25억~30억 톤의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을 위한 산림면적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식량 안보>

인도는 곡물에 대한 식량 자급률이 높은 편이며, 수출하는 주요 식량 품목으로 쌀(40%, 非 바스마티 24.7% 및 바스마티 14.3%), 버펄로(13%), 밀(9%), 옥수수(4%) 등이 차지하고 있다. 쌀, 밀, 옥수수 등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서 인도는 글로벌 식품 및 농산물의 가격 상승에 대비하면서, 내수용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인도는 브라질 중국 미국 등, 4대 요소 수입국 중 하나로 비료 가격 상승에 매우 민감하다. 생산 비용 상승으로 식품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품 공급망 관리에 정부 차원의 대응에 임하고 있다.

표12) 식량 안보 현황 및 대응

현황	대응
밀 (세계 2위, 1억 톤 생산, 국내 수요 높음)	밀 수출금지(22.05.13), 밀가루 수출 금지(22.08.14)
설탕 (세계 1위 생산, 세계 2위 수출국)	수출 제한(22.06.01.~23.10.31, 1천만 톤 제한)
쌀 (국내 식품 수출 40%)	‘깨진 쌀알’ 수출금지, 일부 품종 20% 수출 관세
비료 (세계 2위 소비, 5,500만 톤, 요소 수입의존도 높음 -칼륨 100%, 인산염 90%)	비료 보조금 확대(1.05조 루피), 요소 제조시설 신규 투자 촉진 (NIP, 2012)



<공급망 관리>

인도는 인-중 국경 지역(라다크) 군사 충돌(2020년, 20명 사망),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특정국에 대한 전략물자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도의 공급망 확보 정책은 3가지이다. 첫째,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고,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국내 생산, 국내 시장, 국내 공급망을 강조하는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 및 협력 확대 추진 등이다.

표13) 공급망 안보 현황 및 대응

현 황	대 응
중국 의존도 편중 (교역 규모 11.2%, 21/22년 중국산 수입 900억 달러, 적자 700억 달러, 의약품 API 및 중간재 70%, 비료 45%, 전자제품 38%, 기계류 31%, 자동차 부품 27%, 휴대폰 부품 25%)	자립 인도 정책(20조 루피),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생산 연계 인센티브 확대 - 휴대폰 및 부품, 전자기기, 의료기기(2020년), 의약품, 통신기기, 식품, 태양광, 백색가전, 배터리, 섬유, 드론, 자동차, 특수철강, 반도체(2023년, 2조 루피)
	수입의존도 다변화 (일본-호주-인도, SCRI 출범(21.04) IPEF(22.05),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 합의(21.09), 중요기술 공급망 원칙 공동성명 채택(22.05)

<핵심 광물>

인도는 리튬 및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매장량이 높은 수준임에도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전적으로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경제 안보의 개념에서 핵심 광물의 범주는 미정이지만 최근 전자제품 및 재생에너지 등 산업의 필수 연료로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및 희토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공공 합작 기업 설립과 호주,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와 핵심 광물에 대한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표14) 핵심 광물 안보 현황 및 대응

현 황	대 응
희토류 (매장량 5위, 미개발로 중국산 수입의존도 높음)	인도-호주 희토류 원소(REE) 공급망 협력 확대, 핵심 광물 투자 파트너십 (India-Australia Critical Minerals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
니켈 (주요 수입국-러시아, 세계 공급 8%, 극심한 가격변동, 스테인레스 가격 상승 리튬(세계 7위 매장량, 590만 톤 리튬 추정 매장지 발견(23. 02.09), 초기 탐사 단계, 최종 개발까지 수년 소요 예상	KABIL(Khanij Bidesh India Limited) 설립 (리튬 코발트 등 전략광물 해외 조 달 합작투자사, KABIL-아르헨티나 공기 업(JEMSE, CAMYEN, YPF) MOU체결, 아르헨티나La Aguada 및Catamarca의 El Indio에서 리튬 및 기타 광물 탐색을 시작, 호주 및 칠레와 MOU 체결

<사이버 안보>

인도 IT산업의 GDP 비중은 7.4%, 2025년 3,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까지 대기업의 40%가 마케팅, 법률, HR, 조달 및 공급망
물류 등 중요한 모든 기능에 AI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잠재적인 기술 침
해로 인한 신원 도용, 해킹, 은행 사기 등 경제 손실과 정치 불안정의 위험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5) 사이버 안보 현황 및 대응

현 황	대 응
사이버 공격 (세계 59% 인도 발생, 2022년 상반기, 674,000건, 랜섬웨어 - 석유, 가스, 운송 및 전력 필수 인프라 (쿠단쿨람 원전 공격 2019.10), AIIMS(인도 최고의료기관, 2022.11), 사이버 보안 시장 성장률(CAGR 15.3%)	국가 사이버 보안정책(2013년) 및 사이버 보안 국가 총괄기관 CERT-In Digital India의 일부로 Cyber Swachhta Kendra (CSK) 도입,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the digital Ecosystem (2022.08)



IV.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 분야

1. 한-인도 무역 및 투자 현황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시행 이후에 양국의 교역량은 2022년 말 기준, 278억 달러로 상승했다. 2018년 한-인도 정상 회담 당시, 모디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는 목표에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대인도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188억 8천만 불(수출)과 89억 불(수입)을 기록하며 흑자 규모 역시 99억8천만 불로 100억 불에 육박했다.

한국의 대인도 FD) 규모는 인도 내 13위를 기록했는데,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누적 FDI 규모는 14억 달러에서 54억 달러 규모로 약 4배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중국을 대체할 최고의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며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삼성, LG, 현대차, 기아, 포스코가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등, 인도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중국 공장을 대체할 최적의 생산기지로 인도를 선택하고 있다. PLI 제도의 성공적 안착으로 인해 전기, 백색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 섬유, 진단키트 등 진출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표16) 대인도 투자 진출 현황

(단위: 백만 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9.	누적 (1980년대 이후)
투자금액	1,072	453	625	336	286	7,684
신고 건수	410	452	308	246	186	4,662
신규법인 수	119	129	74	56	45	1,403

(출처: 수출입은행 2023.1.13)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생산연계인센티브)>

PLI 제도는 ‘Make in India’의 핵심 제도이자 인도 진출 한국기업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핵심 전략이다. PLI란 약정한 목표(매출 증가액 및 투자액 등) 달성 시 4~6년간 수출액 혹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4~6%)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전자제품, 3대 분야에 9개 기업이 PLI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관련 인센티브를 IT 하드웨어, 섬유, 바이오 등으로 확대하는 PLI 2.0을 추진 중이고 지난해, 삼성전자는 5 G 생산공장 건설 추진을 선언하며 인도에 PLI 2.0을 신청한 상태이다.

표17) PLI 투자 현황

순번	회사명	PLI 종류	투자금액 (USD, 백만)
1	삼성전자	가전제품 (Large Scale Electronics)	83.88
2	삼성전자	무선통신 (Telecom Equipment)	11.95
3	현대기아차	자동차(생산) Automotive - Champion OEM	646.26
4	현대기아차	자동차(생산) Automotive - Champion OEM	
5	경신	자동차(부품) Automotive - Compon ent Champion	
6	만도	자동차(부품) Automotive - Component Champion	
7	LG전자	백색가전 (White Goods - Acs)	57.01
8	일진전자	백색가전 (White Goods - Acs)	
9	영원무역	직물 (Textiles)	36.37
	합계		835.46

(출처: EY India)



2. 한-인도 핵심 협력 분야 (5개 분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위협 등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 대상으로 인도는 경제 규모와 산업 시너지 측면에서 한국에게 큰 기회임이 틀림없다.

(1) 안보 협력

2020년, 한국과 인도는 방산협력 로드맵에 공동 서명하며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인도 기업들이 다목적 헬기, LT탱크, 디젤잠수함, 신세대 전투차량(FRCV) 및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 개발에 한국과 신뢰감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점과 향후, 인도 해군의 현대화 전환 시 한국기업들의 기뢰대응함(MCMV), 함대고체지원함(FSS) 및 상륙수송선거함(LPD)과 같은 첨단 군사용 선박 건조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인도는 최근 군사력 증강과 함께 군의 현대화 작업에 국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폴란드와 호주에 조 단위 방산 수출을 성공시킨 한국의 경우 인도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무기 수출 증대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2) 글로벌 공급망

앞서 설명한, PLI 제도 및 인도의 공격적인 제조업 유치 정책과 함께,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희토류 및 리튬과 같은 주요 제조업 핵심 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한국 경제 안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인도 시장은 수출시장과 공급시장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임이 틀림없다.

PLI2.0 제도의 확대로 단순 조립 생산기지에서 5G 네트워크, 전기차, 바이오, 섬유 등 한국기업들의 안정적 인도 진출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



고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협력

세계 3위의 유니콘 기업 보유국이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STEM 계열 전문 인력을 배출할 인도와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과 최고 기술력의 무선통신 업체를 보유한 한국과의 잠재적 시너지는 매우 크다.

이미, 글로벌 IT 기업 등과 인도 정부는 인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영컨설팅, 법률, 회계 등 IT와 접목된 전문 지식 서비스업 분야의 미래 허브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시장 규모와 인력, 한국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친환경 교통수단(Green Mobility), 로봇, 수소 발전, 정보통신, 쿼텀 기술 등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접목될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에 민-관 네트워크 기반 형성에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숙련된 노동력

한국의 출산율은 0.78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기준 2030년 세계 1위에 도달하고, 전체 인구수가 14억 명을 넘어선 인구 대국이다. 특히, 인도는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5대 산업인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의 인력 수요에 충분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Top-Tier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한 인도는 노령화 한국에 의료 장비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거점 국가이다. 헬스케어 분야의 협력과 영어 사용권 국가로 교육 분야의 협력도 기대된다.

영어교육 시장의 경제성 있는 교육 인력 공급국가로 한국의 저출산율과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서 인도와 한국의 고도화된 노동 협력이 요구된다.



(5) 에너지 협력

인도와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수소 자동차와 수소 발전 분야에서 인도 정부는 한국기업에 관심이 높다.

인도의 대기질이 나쁘다는 점 또한 인도의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요인으로 뽑힌다. 2022년, 전기차 판매의 경우 2021년 대비 229% 성장했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충전소 무료 개방, 전기차 R&D 및 인프라 확대에 2028년까지 6년간 약 6,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수소 에너지 전문 기술과 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경험과 인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의 시너지가 특히 기대된다.

붙임 : 인도의 여론 주도 인사 현황 /끝/



[부록] 인도의 여론 주도 인사 현황

순번	이름	직위/직책	프로필
1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 Prime Minister (PM)	2014년부터 인도의 총리직을 수행 중이며, 지난 2019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인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구자라트주에서 12년 넘게 주 총리직(Chief Minister)을 역임했고, 인도를 2047년까지 선진국으로 대열에 진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인도의 총리직을 맡고 있다.
2	니르말라 시타라만 (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and Corporate Affairs)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헌신적인 공무원으로 정치 및 사회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 장관, 상공부 국무장관(Independent Charge), 재무 장관과 같은 주요 직책을 경험했다.
3	수브라마냐ం 자이산카르 (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부 장관 (Minister of External Affairs)	인도에서는 드문 경우로, 외교관 출신으로 2019년에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어 입각했다. 중국, 미국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외교관계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치인은 출신은 아니지만, 모디 정부의 주요 장관으로 판단된다.
4	아지트 도발 (Ajit Doval)	국가안보 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경찰 관료(IPS)와 전직 정보요원 출신으로 모디 총리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 보좌관직을 수행 중이다. 모디 총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미국 및 중국 정부와의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5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Ashwini Vaishnaw)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Minister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인도 국민당(BJP) 소속으로 2021년 7월부터 철도, 통신, 전자 및 정보 기술부 장관을 역임 중이다. 전 인도행 정관료(IAS)이자 GE Transport의 상무이사 직을 맡은 기업가 출신으로 이력사항이 특이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6	니틴 가드카리 (Nitin Gadkari)	도로교통부 장관 (Minister for Road Transport & Highways)	BJP의 고위급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에 재임 중이다. “고가도로 남자”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고가도로 건설로 명성을 얻었다. 무엇이든 성공시키는 장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주변의 존경을 받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순번	이름	직위/직책	프로필
7	피유시 고얄 (Piyush Goyal)	상공부 장관 (Minister of Commerce & Industry)	인도 공인 회계사(CA)이자 투자은행 출신 경력을 지닌 상공부 장관이다. F TA 체결을 주도하고 있는 현 행정부 의 핵심 인물이다.
8	아미타브 칸트 (Amitabh Kant)	G20 회의 셰르파, 전) NITI Aayog 대표 (G20 Sherpa, Ex-CEO Niti Aayog)	인도 정부 싱크 탱크인 NITI Aayog 전 대표를 지냈다. 거버넌스 및 공공 정책 개혁을 추진하며 대중에 나서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산업통상부 (DIPP) 차관직과 NITI Aayog를 이끌 며 “Startup India”, “Make in Indi a”, “Incredible India”, 등 주요 이 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했다.
9	아난타 나게스와란 (V. Anantha Nageswaran)	수석 경제 보좌관 (Chief Economic Advisor)	2022년부터 인도 수석 경제 보좌관직을 수행 중이다. 금융시장 및 국제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췄으며 컨설턴트, 교사, 저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0	T.V 소마나탄 (T. V. Somanathan)	재무 차관 (Finance Secretary)	상무부 국장, 총리실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경제, 금융 및 공공 정책에 관한 출판물을 저술한 다작 작가 이자 세계은행 이사로 재직한 이력을 가 지고 있다.
11	수닐 바스왈 (Sunil Barthwal)	상무 차관 (Commerce Secretary)	경제학자이자 인도 행정부 관료(IAS)이다. 금융, 사회 보장, 투자, 인프라, 광산, 철 강, 에너지 및 운송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 의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12	수만 베리 (Suman Bery)	Niti Aayog 부의장 (Vice Chairperson, Niti Aayog)	인도 정부 싱크탱크인 Niti Aayog의 수장 이자 인도 여론시장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정치 경제, 금융 부문 및 은행 개혁, 에너 지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고 세계적 인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CPR (Center for Policy Research)에서 근무 한 이력이 있다.
13	V.K 사라스와트 (Vijay Kumar Saraswat)	NITI Aayog 위원 (Member, NITI Aayog)	인도 내 저명한 과학자다. 국방연구개발기 구(DRDO)의 차관을 역임하며 국방 연구 및 미사일 기술 내재화 분야에서 결정적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NITI Aayog 위원 으로 '메탄올 경제' 프로그램을 개척해냈 다.



순번	이름	직위/직책	프로필
14	라메쉬 찬드 (Ramesh Chand)	NITI Aayog 위원 (Member, NITI Aayog)	인도의 저명한 농경제학자이다. 지난 30년 간, 식량과 영양 안보 관련 농업 이슈들을 연구하며, 최근에는 인도 내 농업개발 아젠다를 “식량 안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2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며 빈곤, 무역, 식량 정책, 농업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15	아르빈드 파나가리야 (Arvind Panagariya)	인도 경제학자 (Indian Economist)	2015년부터 2017년까지 NITI Aayog의 초대 부의장을 역임했다. 학계로 다시 돌아가서도 여전히 모디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G20 셰르파를 역임하며 재임 중 터키, 중국, 독일 정상과 G20 코뮌িকে 협상을 이끈 경험이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15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뛰어난 작가이기도 하다.
16	샤크티칸타 다스 (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 (RBI Governor)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노련한 경제 관료로 상당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기도 했다.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되기 전에는 경제 차관과 G20 인도 셰르파를 역임했다.
17	비노드 쿠마르 폴 (Vinod Kumar Paul)	NITI Aayog 위원 (Member, NITI Aayog)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저명한 의학자이다. ‘Ayushman Bharat-PMJAY’, ‘건강 및 웰빙 센터’, ‘POSHAN Abhiyaan’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들을 공식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여러 그룹 및 태스크 포스의 의장을 맡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중 보건 전문가로 400개 이상의 과학 출판물을 출간한 이력이 있다.
18	난단 닐레카니 (Nandan Nilekani)	Infosys 공동 창립자 겸 이사회 의장 (Founder & Non-executive Chairman of Infosys)	UIDAI(인도 주민등록청)의 청장으로 있는 동안 인도 주민등록 체계인 Aadhaar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공공분야 디지털 제품 제작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19	R.K 싱 (Raj Kumar Singh)	인도 전력부 장관 (Minister of Power)	경찰과 교도소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 전직 IAS 관료 출신이다. 인도의 탈탄소화 작업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순번	이름	직위/직책	프로필
20	디팍 파레크 (Deepak Parekh)	HDFC 회장 (Chairman HDFC)	은행 주택 금융, 자산 관리 분야 인도 최고의 민간은행인 HDFC의 회장으로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도 내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1	아난드 마힌드라 (Anand Mahindra)	마힌드라 그룹 회장 (Chairman of Mahindra Group)	마힌드라 그룹을 자동차, 농업, IT 및 항공우주를 포함한 주요 산업 부문으로 확장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여아 교육을 위한 Nani Kali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자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2	우다이 코탁 (Uday Kotak)	코탁 마힌드라 은행 은행장 (CEO of Kotak Mahindra Bank)	코탁 마힌드라 은행의 창립자이자 MD 겸 CEO다.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대한 믿음으로 34년 동안 연 평균 40%의 성장을 달성했다. 인도의 경제 관련 조직인 CII, IUKFP 및 IL&FS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SEBI 기업 지배 구조 위원회의 위원장도 역임했다.
23	비벡 데브로이 (Bibek Debroy)	인도 총리실 산하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 (Chairman of the Economic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	총리 산하 경제 자문 위원회(EAC-PM)의 위원장으로서 훌륭한 학문적 배경과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판물을 저술했고 인도 국가 훈장(Padma Shri) 및 금융 관련 Shriram Sanlam 상 등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24	산지브 산얄 (Sanjeev Sanyal)	선임 경제 보좌관 (Principal Economic Advisor)	저명한 경제학자, 작가 및 환경 운동가다. 도이처방크의 글로벌 전략 부문 담당 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을 만큼 금융 분야 전문가다. 인기도서 작가로도 유명하며 국내외 저널에 많은 기고문을 발표했다.
25	TV 모한다스 파이 (TV Mohandas Pai)	비즈니스 리더, 자선활동가 (Business Leader, Philanthropist)	Manipal Global Education Services와 Aarin Capital의 회장이다. 매일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Akshaya Patra를 공동 설립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BI)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인도 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의 이사진을 맡고 있다. Infosys의 CFO 시절, 직원 스톡 옵션제도와 NASDAQ 상장을 성공시켰다. 동시에 많은 에인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순번	이름	직위/직책	프로필
26	라비쉬 쿠마르 (Ravish Kumar)	NDTV India 뉴스 앵커 (News Anchor, NDTV India)	언론인 활동으로 다양한 수상 경력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정치 사회에 대한 확고한 의견과 비판적 분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7	아르납 고스와미 (Anab Goswami)	리퍼블릭 티브이 창립자 겸 편집인 (Founder & Editor -in-Chief of Republic TV)	공격적 스타일의 언론인으로서 논란이 많은 의견을 과감하게 제시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라지디프 사르데사이 (Rajdeep Sardesai)	인디아 투데이 자문 편집인 (Consulting Editor of India Today)	오랜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인도 정치 및 사건들에 대한 광범위한 취재로 잘 알려져 있다.
29	수디르 초다리 (Sudhior ChaudaB ibek Debroy)	지뉴스 편집인 (Editor-in-Chief of Zee News)	인도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30	프리티쉬 난디 (Pritish Nandy)	시인, 화가, 언론인, 정치인 (Poet, Painter, Journalist, Politician)	전직 상원의원이며, 문화 예술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언론과 영화 등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